

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2서식] <개정 2021. 6. 23.>

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

수신자 이양재 귀하 (우 5509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)
(경유)

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([V]부존재 [] 진정·질의 [] 종결 등) 통지서

접수번호 11808201	접수일 2024. 01. 25.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<p>제목 대통령실을 폭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지</p> <p>참조 제목 6급 상당 서정호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니 이송기관 무시 정도는,,(2) ‘신내림 받 았다’는 소문은 없지요? 대통령이 잘못된 일과 했어야 할 일들(2024.1.21.)</p> <p>1. 이 거지발 싸개 같은 새끼 들을 어떻게 하지요? 이런 놈 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니,,</p> <p>2. 윤석열씨! 修身齊家도 못하는데 治國(平天下)까지?</p> <p>3. 한동훈씨에게 우승한 대단히 용기 있는 기관(전결자에게 ‘대단한 용기의 기안자가 소 신껏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고맙다’고 인사전합니다)이 나온 덕분에 이양재가 보내 려는 계획은 포기하였습니다.</p> <p>-역대 장관 중 2번째라고 칭찬했던 한동훈씨의 점수를 깎아야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. 좀 더 두고 봐야 겠지만 김경률이라는 놈이 100% 잘못하였음에도 감싸고도는 것 같은,,</p> <p>4. 여전히 기안자 6급 상당 서정호는 변함이 없고, 전결자이던 역적 1호 김동조는 더 중 요한 자리로 이동되었고, 후임비서관 최진웅의 종결 사유는 항상 똑같은</p> <p>[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(제11조의2제1항제1호)</p> <p>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, 처리완료된 청구내용과 내용</p>
-------	--

	<p>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종결처리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]</p> <p>5. 이런 개 새끼들이 대통령실에서 월급버 러지 노트를 하고 있으니 양오봉이 정도는 당연히,, 어쨌건 개 새끼들에게 주는 월급이라도 아끼기 위해 영무새들로 교체하면,, 끝</p>
<p>정보 부존재, 진정·질의,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</p>	<p>정보부존재 사유 :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·접수하지 않은 경우</p> <p>정보부존재 사유 :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·접수하지 않은 경우</p> <p>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입니다.</p> <p>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번호 11808201 (2024.1.25.)호는 서울장학재단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
<p>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</p>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

서울장학재단 이사장

협조자

시행

우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서울장학재단

전화번호 02-8667-3512

팩스번호 02-4133-2258 / dk248@hissf.or.kr

/ 공개 구분

유의사항

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